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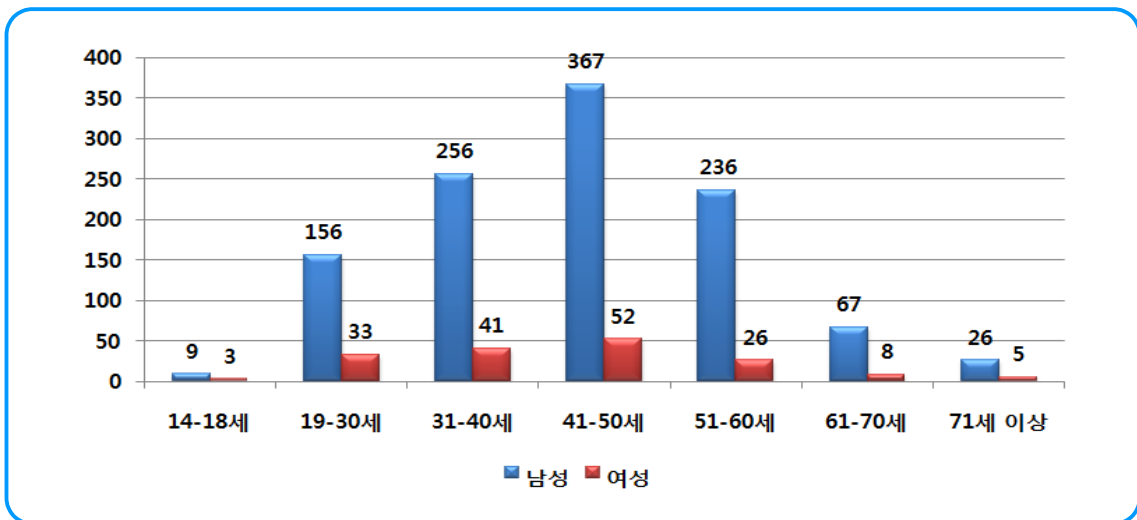
## 4. 2011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

### 가. 살인

〈표 16〉 살인범죄 피의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 인원, %

연령 \ 성별	남성	여성	계
14-18세	9( 0.8)	3( 1.8)	12( 0.9)
19-30세	156(14.0)	33(19.6)	189(14.7)
31-40세	256(22.9)	41(24.4)	297(23.1)
41-50세	367(32.9)	52(31.0)	419(32.6)
51-60세	236(21.1)	26(15.5)	262(20.4)
61-70세	67( 6.0)	8( 4.8)	75( 5.8)
71세이상	26( 2.3)	5( 3.0)	31( 2.4)
계	1,117(100.0)	168(100.0)	1,28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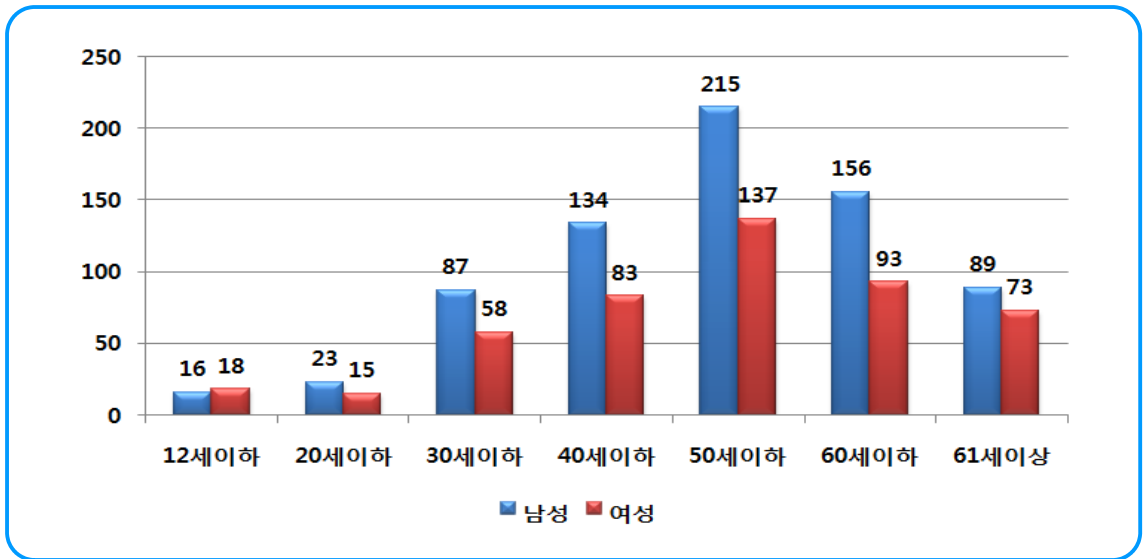
〈그림 19〉 살인범죄 피의자 성별 연령 분포

- 살인범죄 피의자는 남성이 8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살인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3.1%, 50대 20.4%, 20대(19세 포함)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7〉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분포

단위 : 건, %

피해자 연령 \ 피해자 성별	남성	여성	계
12세이하	16( 2.2)	18( 3.8)	34( 2.8)
20세이하	23( 3.2)	15( 3.1)	38( 3.2)
30세이하	87(12.1)	58(12.2)	145(12.1)
40세이하	134(18.6)	83(17.4)	217(18.1)
50세이하	215(29.9)	137(28.7)	352(29.4)
60세이하	156(21.7)	93(19.5)	249(20.8)
61세이상	89(12.4)	73(15.3)	162(13.5)
계	720(100.0)	477(100.0)	1,19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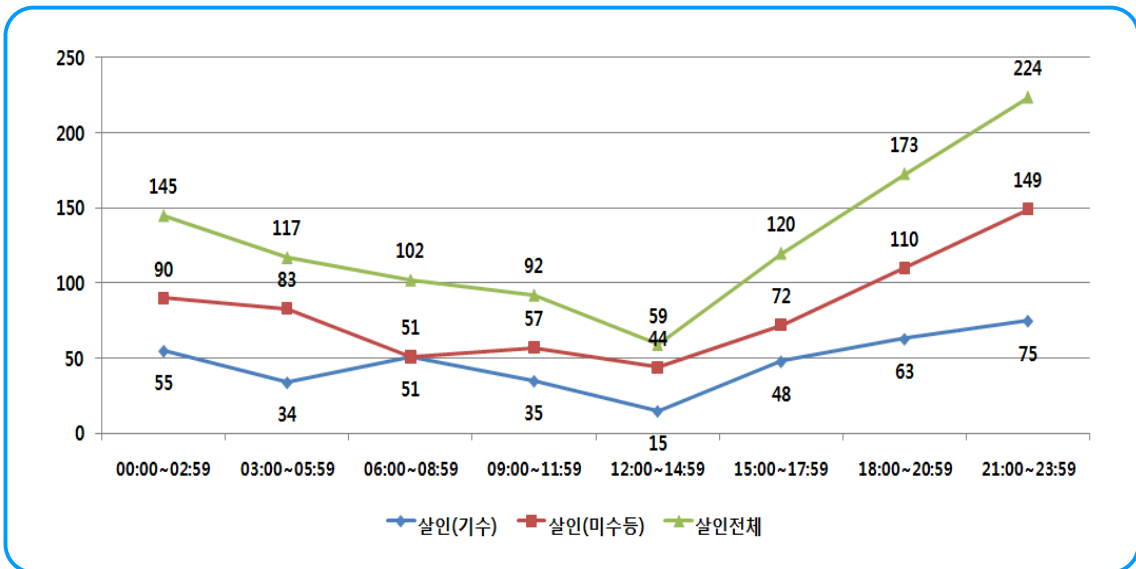
〈그림 20〉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분포

- 살인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60.2%, 여성이 39.8% 로 나타남.
-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50세 이하의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하 20.8%, 40세 이하 18.1%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표 18〉 살인범죄 기수 미수별 발생시간 분포

단위 : 건, %

발생시간	기수·미수등	기수	미수등	계
00 : 00~02 : 59		55(12.9)	90(11.6)	145(12.0)
03 : 00~05 : 59		34( 8.0)	83(10.7)	117( 9.7)
06 : 00~08 : 59		51(11.9)	51( 6.6)	102( 8.5)
09 : 00~11 : 59		35( 8.2)	57( 7.3)	92( 7.6)
12 : 00~14 : 59		15( 3.5)	44( 5.7)	59( 4.9)
15 : 00~17 : 59		48(11.2)	72( 9.3)	120(10.0)
18 : 00~20 : 59		63(14.8)	110(14.2)	173(14.4)
21 : 00~23 : 59		75(17.6)	149(19.2)	224(18.6)
미상		51(11.9)	121(15.6)	172(14.3)
계		427(100.0)	777(100.0)	1,20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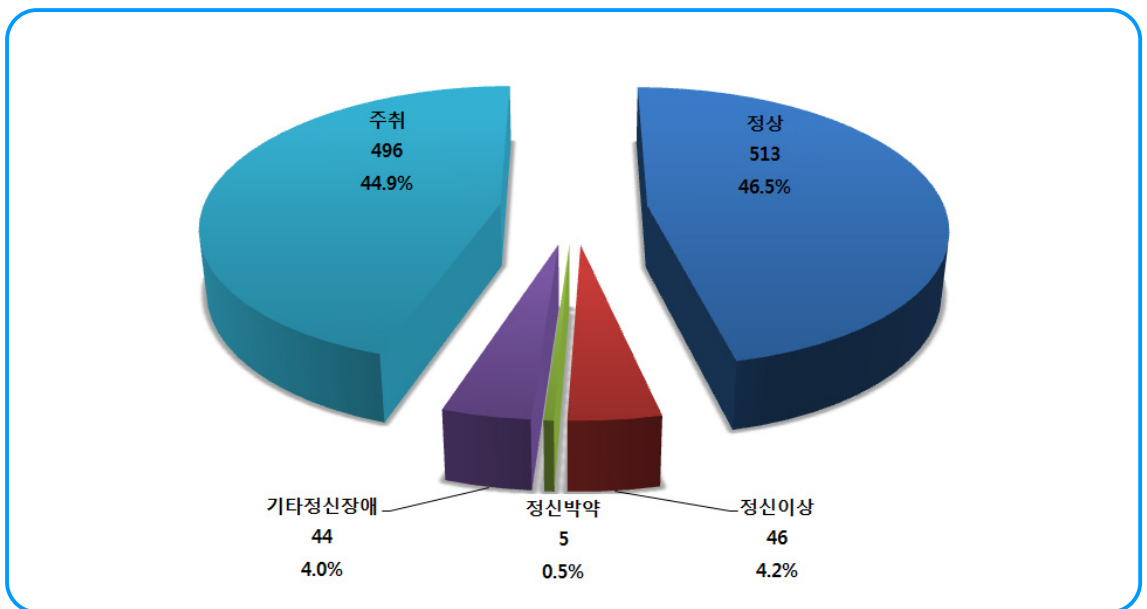
〈그림 21〉 살인범죄 기수 미수별 발생시간 분포

- 살인범죄는 전체적으로 21 : 00~23 : 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다가 12 : 00~14 : 59 시간대에 가장 적게 발생하고, 다시 증가하여 21 : 00~23 : 59 시간대에 최고치에 이름
- 살인 기수 범죄는 21 : 00~23 : 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잠시 감소하지만, 아침 시간대인 06 : 00~08 : 59 시간대에 다시 증가하였고, 12 : 00~14 : 59 시간대까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1 : 00~23 : 59 시간대에 최고치에 이름
- 살인 미수 범죄 역시 21 : 00~23 : 59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감소하지만, 아침과 오전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이후 12 : 00~14 : 59 시간대까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1 : 00~23 : 59 시간대에 최고치에 이름

〈표 19〉 살인범죄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인원, %

범행시정신상태	검거인원	구성비
정 상	513	46.5
정 신 이 상	46	4.2
정 신 박 약	5	0.5
기 타 정 신 장 애	44	4.0
주 취	496	44.9
계	1,104	100.0



〈그림 22〉 살인범죄 범행시 정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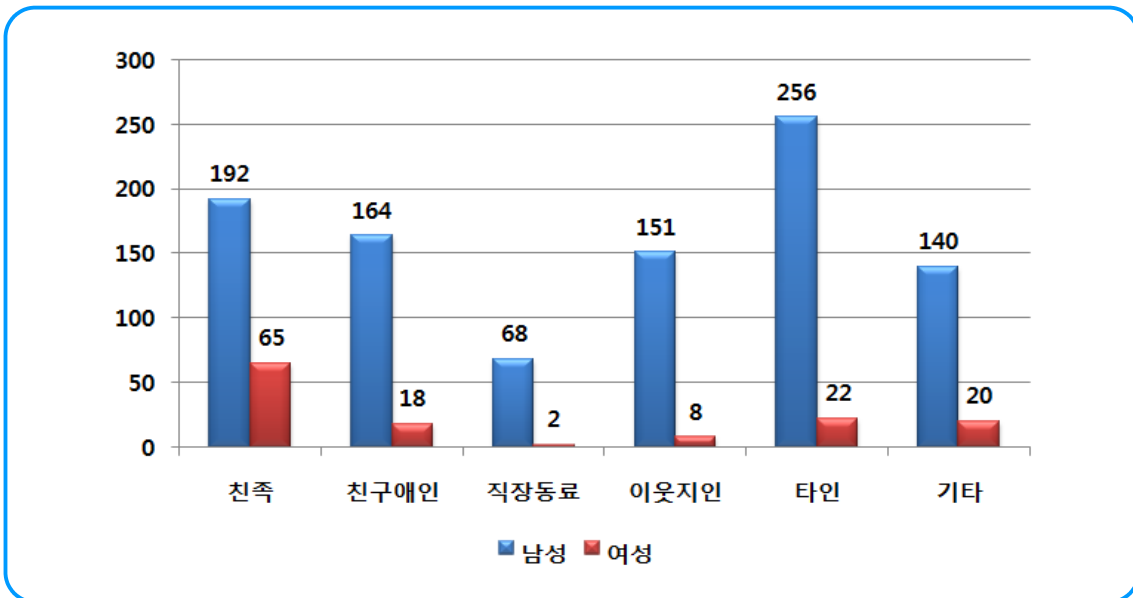
- 살인범죄 피의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피의자는 거의 없었음. 그러나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44.9%로 정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46.5%)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분석 결과는 결측값(181건)을 제외한 것임

〈표 20〉 살인범죄 피의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인원, %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 성별	남성	여성	계
친	족	192(19.8)	65(48.1)	257(23.2)
친	구	164(16.9)	18(13.3)	182(16.5)
직	장	68( 7.0)	2( 1.5)	70( 6.3)
이	웃	151(15.6)	8( 5.9)	159(14.4)
타	인	256(26.4)	22(16.3)	278(25.1)
기	타	140(14.4)	20(14.8)	160(14.5)
계		971(100.0)	135(100.0)	1,10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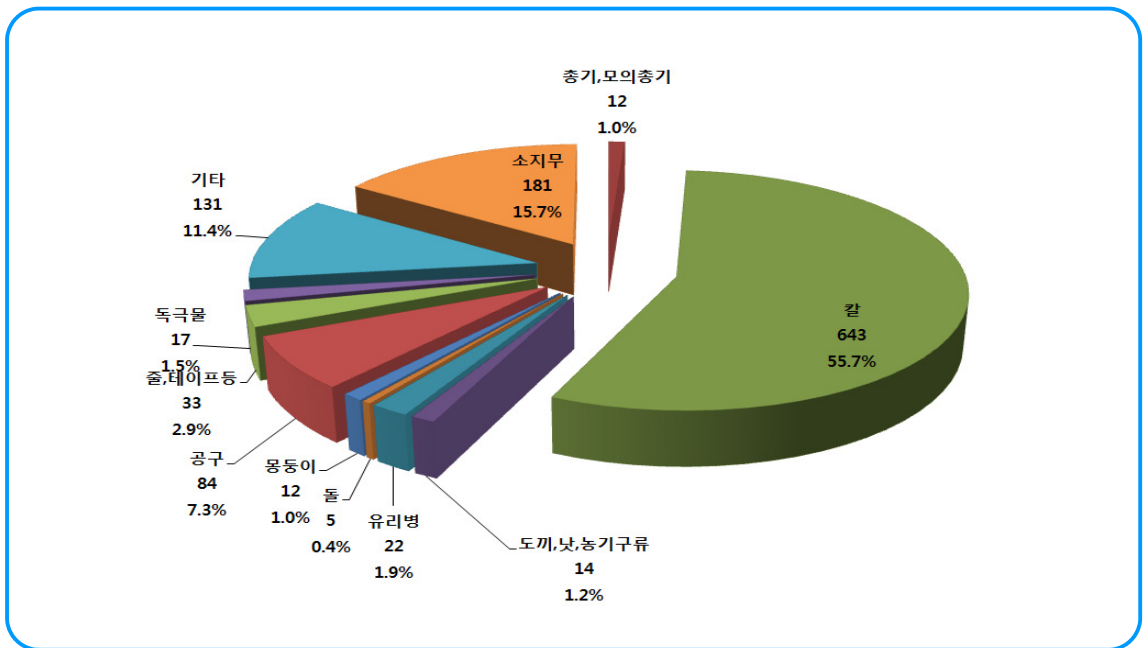
〈그림 23〉 살인범죄 피의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음.
-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타인을 대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족, 친구 등의 비율. 그리고 이웃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의 비율도 여성에 비해 높았음
- 여성의 경우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 애인 등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의 비율이 높았음

〈표 21〉 살인범죄 범행도구

단위 : 건, %

범행도구	구분	검거건수	구성비
총기, 모의총기		12	1.0
칼		643	55.7
도끼, 낫, 농기구류		14	1.2
유리병		22	1.9
돌		5	0.4
몽둥이		12	1.0
공구		84	7.3
줄, 테이프 등		33	2.9
독극물		17	1.5
기타		131	11.4
소지무		181	15.7
계		1154	100.0



〈그림 24〉 살인범죄 범행도구

- 살인범죄의 범행 도구를 살펴보면, 칼을 사용한 경우가 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공구를 사용한 경우가 7.3%, 줄이나 테이프 등을 사용한 경우가 2.9% 등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살인범죄도 15.7%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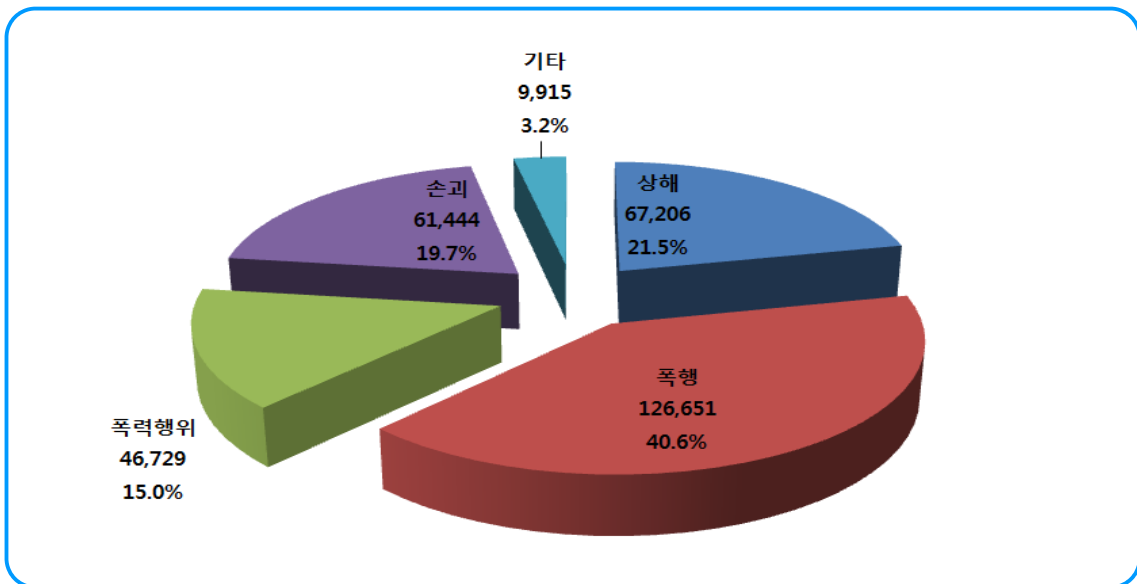
## 나. 폭력

〈표 22〉 폭력범죄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

죄종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상	해	67,206	21.5
폭	행	126,651	40.6
폭	력		
행	위	46,729	15.0
손	괴	61,444	19.7
기	타	9,915	3.2
계		311,945	100.0

기타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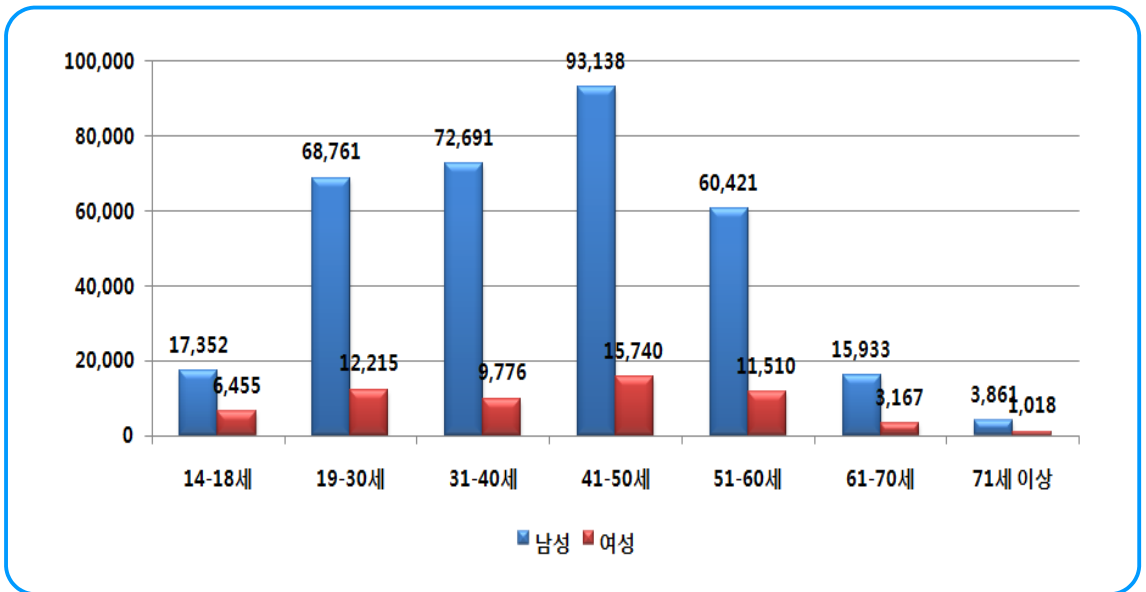
〈그림 25〉 폭력범죄 유형별 분포

- 폭력범죄의 분포를 살펴보면, 폭행 40.6%, 상해 21.5%, 손괴 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15.0% 등으로 나타났다.

〈표 23〉 폭력범죄 피의자 성별 연령 분포

단위 : 인원, %

연령	성별	남성	여성	계
14-18세		17,352( 5.2)	6,455(10.8)	23,807( 6.1)
19-30세		68,761(20.7)	12,215(20.4)	80,976(20.7)
31-40세		72,691(21.9)	9,776(16.3)	82,467(21.0)
41-50세		93,138(28.0)	15,740(26.3)	108,878(27.8)
51-60세		60,421(18.2)	11,510(19.2)	71,931(18.3)
61-70세		15,933( 4.8)	3,167( 5.3)	19,100( 4.9)
71세이상		3,861( 1.2)	1,018( 1.7)	4,879( 1.2)
계		332,157(100.0)	59,881(100.0)	392,038(100.0)



〈그림 26〉 폭력범죄 피의자 성별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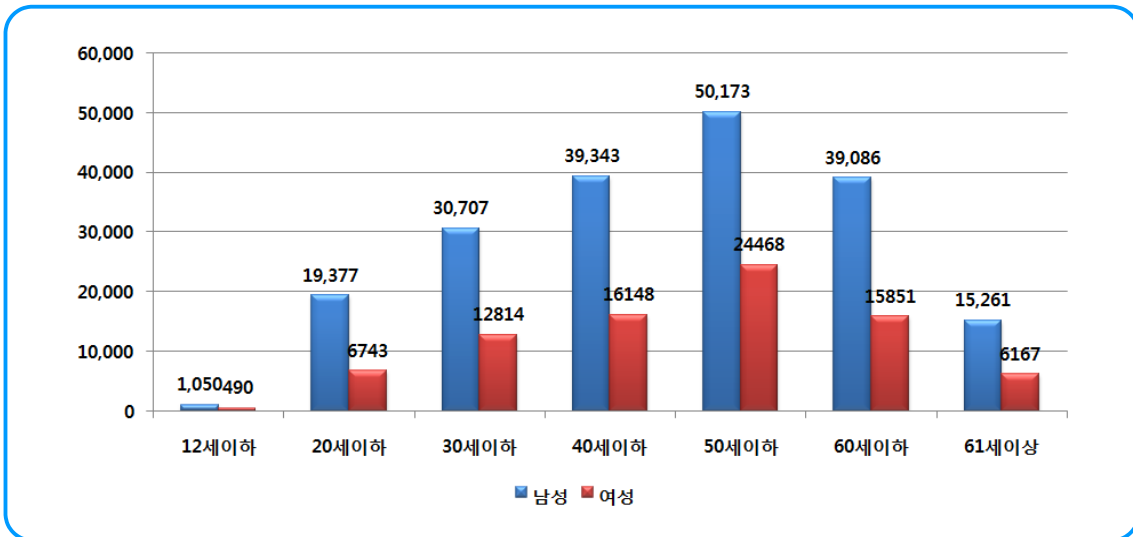
- 폭력범죄의 피의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84.7%, 여성이 15.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음
- 폭력범죄 피의자의 연령은 40대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0.0%, 20대(19세포함) 20.7%, 50대 18.3%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피의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8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분포

단위 : 건, %

연령	성별	남성	여성	계
12세이하		1,050( 0.5)	490( 0.6)	1,540( 0.6)
20세이하		19,377( 9.9)	6,743( 8.2)	26,120( 9.4)
30세이하		30,707(15.7)	12,814(15.5)	43,521(15.7)
40세이하		39,343(20.2)	16,148(19.5)	55,491(20.0)
50세이하		50,173(25.7)	24,468(29.6)	74,641(26.9)
60세이하		39,086(20.0)	15,851(19.2)	54,937(19.8)
61세이상		15,261( 7.8)	6,167( 7.5)	21,428( 7.7)
계		194,997(100.0)	82,681(100.0)	277,67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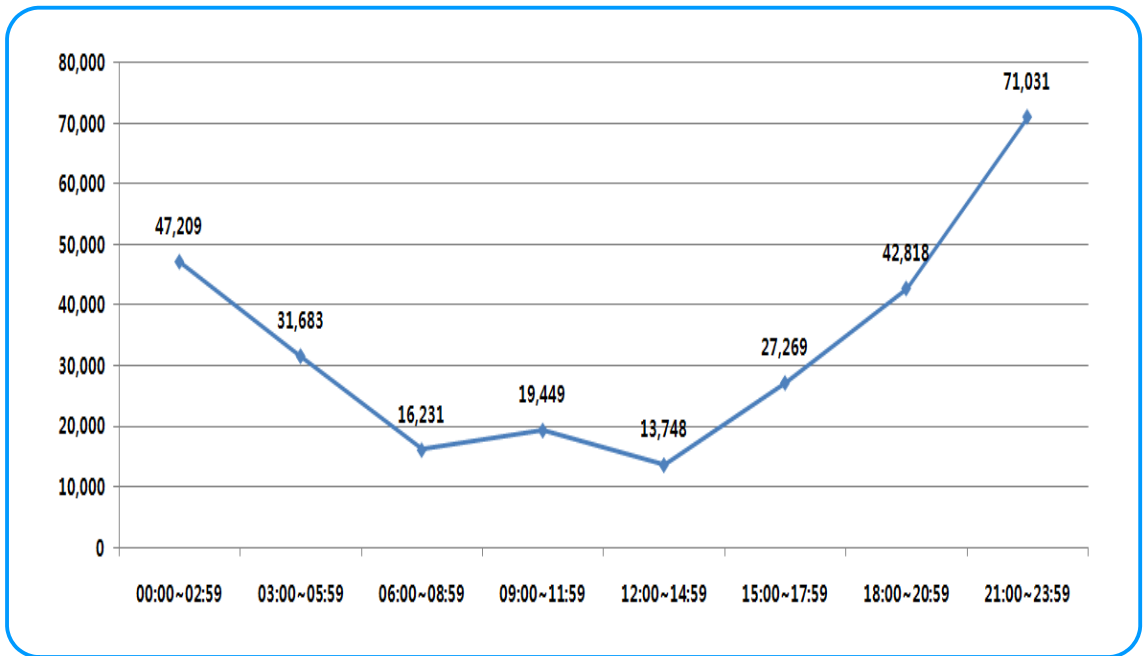
<그림 27> 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분포

- 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이 69.7%, 여성이 29.2%로 나타났음
  - 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하가 2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40세 이하 20.0%, 60세 이하 19.8%, 30세 이하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50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분석 결과는 피해자 성별 결측치 3,497건 및 피해자 연령 결측치 32,474 건을 제외한 것임

〈표 25〉 폭력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발생시간	구분	발생건수	구성비
00 : 00~02 : 59		47,209	15.1
03 : 00~05 : 59		31,683	10.2
06 : 00~08 : 59		16,231	5.2
09 : 00~11 : 59		19,449	6.2
12 : 00~14 : 59		13,748	4.4
15 : 00~17 : 59		27,269	8.7
18 : 00~20 : 59		42,818	13.7
21 : 00~23 : 59		71,031	22.8
미상		42,507	13.6
계		311,945	100.0



〈그림 28〉 폭력범죄 발생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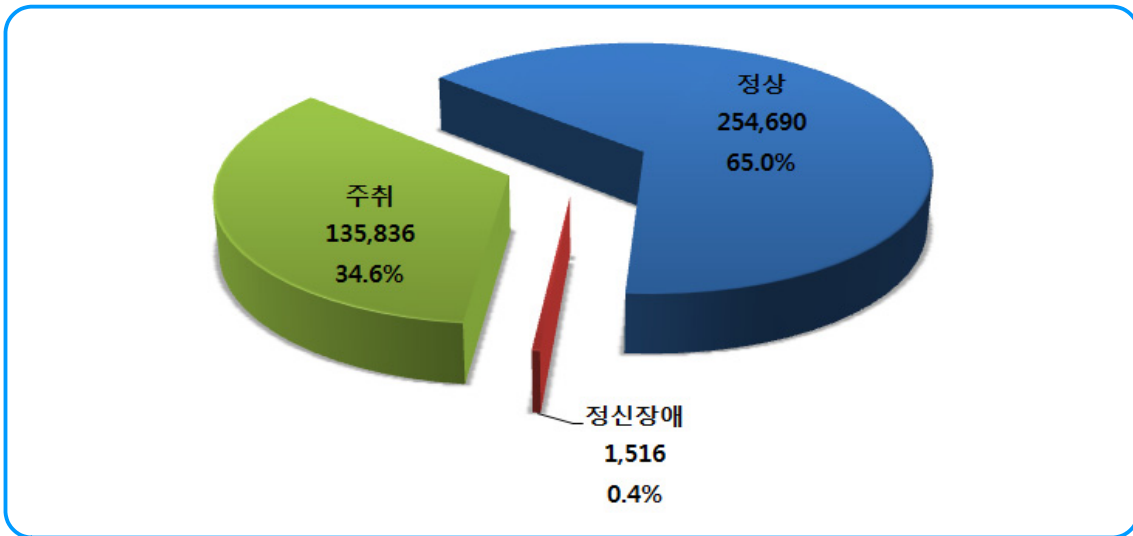
○ 폭력 범죄는 21 : 00~23 : 59 시간대에 22.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06 : 00~08 : 59 시간대에 5.2%, 12 : 00~14 : 59 시간대에 4.4% 등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그리고 다시 증가함.

〈표 26〉 폭력범죄 범행시 정신상태

단위 : 인원, %

정신상태	구분	검거인원	구성비
정	상	254,690	65.0
정 신 장 애		1,516	0.4
주	취	135,836	34.6
계		392,042	100.0

※ 정신장애 :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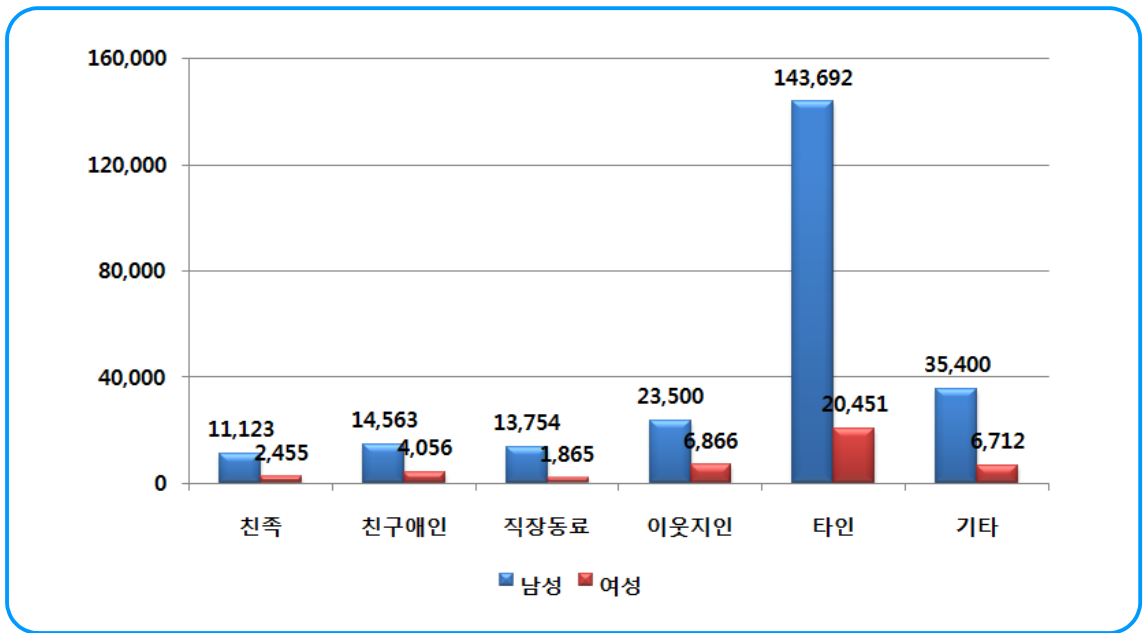
〈그림 29〉 폭력범죄 범행시 정신상태

- 폭력범죄는 정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4%),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65.0%)
- 그러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전체의 34.6%를 나타내고 있음

〈표 27〉 폭력범죄 피의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단위 : 인원, %

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남성	여성	계
	친족		11,123( 4.6)	2,455( 5.8)
친구애인		14,563( 6.0)	4,056( 9.6)	18,619( 6.5)
직장동료		13,754( 5.7)	1,865( 4.4)	15,619( 5.5)
이웃지인		23,500( 9.7)	6,866(16.2)	30,366(10.7)
타인		143,692(59.4)	20,451(48.2)	164,143(57.7)
기타		35,400(14.6)	6,712(15.8)	42,112(14.8)
계		242,032(100.0)	42,405(100.0)	284,437(100.0)



〈그림 30〉 폭력범죄 피의자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 폭력범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5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 이웃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10.7%, 친구나 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6.5%, 친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4.8% 등으로 나타남.
- 폭력범죄 피의자 중 남성은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성은 친족, 친구애인, 이웃지인 등 면식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